



[금융] NH농협금융 “위기가 쓰고 기회라 읽는다 포폴 재편 시너지 극대화” 05



Life

[산업] KT, 설 전 인사 유력 ‘구현모식’ 조직개편은 AI·안정 06



39년째 헌혈캠페인... 의약품 지원 116억... 11년째 소외계층 나눔 인류 건강 책임지는 최장수 사회공헌 기업 ‘한미’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한미약품

한미약품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공헌 활동의 최장수 기업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매년 사회공헌 활동 규모를 점차 키우며 의약품 지원사업은 물론, 의료봉사 활동, 다문화가정 아동 후원을 비롯해 보건의료·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경영이념인 ‘인간 존중, 가치창조’를 바탕으로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제약기업의 소명을 다하기 위한 노력이다.

◆최장기 공익 캠페인 ‘사랑의 헌혈’

한미약품이 진행한 사랑의 헌혈 캠페인도 올해 까지 39년째 꾸준한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한미약품 ‘사랑의 헌혈 캠페인’은 창업주 임성기 회장이 1980년 11월 서울 지하철 시청역의 ‘헌혈의 집’ 개소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1981년 시작됐다. 한미약품의 대표 기업문화로 자리잡은 사랑의 헌혈 캠페인은 ‘생명 나눔 실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6월 대한적십자사 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39년간 한미약품그룹의 사랑의헌혈 캠페인에 참여한 누적 임직원수는 8218명에 달한다. 혈액량으로 환산하면 총 262만 9760cc 규모다.

한미약품의 헌혈 캠페인은 국내 제약회사가 벌인 최장기 공익 캠페인으로, 매년 한미약품 그룹 전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 해 588여명의 임직원이 참여한 헌혈 캠페인을 통해 발급된 헌혈증은 긴급 수혈이 필요한 혈액암 환자들에게 전달했다. 특히 지난해 부터는 헌혈 캠페인을 기존 2회에서 연간 4회로 확대 운영했다. 경기도 화성시(팔탄)와 평택시에 위치한 플랜트에서는 계절적 헌혈 비수기인 1월과 8월에, 서울 송파구 본사와 경기도 동탄의 연구센터, 의원사업부는 4월과 10, 11월에 각각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

한미약품 CSR팀 임종호 전무는 “해가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혈액 수급에 도움을 주기 위해 헌혈 캠페인 확대를 결정했다”며 “인류 건강을 책임지는 제약기업으로서, 업계 내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



한미약품은 올해까지 39년째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한미약품

39년간 사랑의헌혈 캠페인 참여 임직원수 8218명 달해 헌혈증 혈액암 환자에 전달

매년 자선바자회로 기금 마련 소외계층 등 불우이웃 도와 국내외 어린이 위한 의약품 지원



제4회 빛의소리나눔콘서트 현장.



한미사진미술관 내부 모습.

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전국 헌혈자 수는 4년 전에 비해 약 21만명 감소했으며, 개천절과 한글날 등 연휴가 이어지는 시기에는 헌혈자 수가 더 크게 감소한다.

◆임직원, 소외계층 돕기 ‘앞장’

한미약품그룹 임원 가족들도 11년째 따뜻한 나눔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룹사 임원 가족모임인 한미부인회는 매년 자선 바자회를 열고 연말 소외계층 등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기금 마련에 나선다. 바자회를 통해 조성된 기금은 다문화가정 보육센터, 노숙자 보호시설 등 소외계층을 위한 각종 단체 및 기관에 전액 기부되고 있다. 또 한미부인회는 2017년부터 세계시민포럼을 통해 다문화가정 고향방문 경비를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한미약품은 이주아동의 성장과 다문화 가정의 정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춰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에도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는 2011년 한미약품이 김철민 당시 안산시장과 MOU를 체결한 이후 지속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주아동 지원사업 기관이다.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는 이 기금으로 체류난민 생계비 지원 및 영·유아 인지언어발달지원 사업을 비롯해 이주아동을 대상으로 대학생 멘토를 운영하는 통합멘토링 사업 ‘Dreaming-Star’를 진행하고 있다.

◆의약품 지원...누적 금액 116억여원

한미약품은 국내외를 망라한 의약품 지원사업으로 인류에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한미약품은 1997년부터 어린이의약품 지원본부와 함께 북반 어린이를 위한 의약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개발도상국가에도 의약품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0년 10월에는 북한 수해지역에 영양수액제, 해열진통제 등 13억원 규모의 의약품을 개성을 직접 방문해 전달했

으며, 2015년 12월에는 비타민, 종합감기약 포함 10억여원의 의약품을 평양 만경대 어린이종합병원에 전달한 바 있다. 한미약품은 매년 꾸준한 의약품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그 누적 금액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116억여원에 달한다.

문화 지원도 활발하다. 한미약품 공익재단인 가현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한미사진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국내 최초 사진전문 미술관이다. 2002년 비영리갤러리로 시작해 2003년 사진전문 미술관으로 정식 인가, 연평균 6회 전시회를 개최하며 한국 대표 사진미술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미사진미술관은 전시 외에도 작가 지원 및 학술, 출판, 국제 교류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 근현대사진을 소장·연구함으로써 한국사진사의 체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부터 한미약품이 후원하고 현직 의사들로 구성된 메디칼필하모닉오케스트라(MPO)가 주최하는 자선 음악회 ‘빛의소리나눔콘서트’는 콘서트를 통해 ‘빛의소리희망기금’을 조성, 장애 아동들의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원단체를 3곳으로 늘렸다.

MPO와 한미약품은 빛의소리나눔콘서트를 통해 조성한 자선기금은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어린이 합주단인 ‘어울림단’, 전북 익산의 장애인 종합 복지시설 청록원 ‘블루엔젤스 콰이어’에 지원하고 있다. 올해 8회째를 맞는 빛의소리나눔 콘서트는 오는 2월 29일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미약품 우중수대표는 “한미약품은 기업 이념인 인간존중과 가치창조 정신에 입각해 양질의 의약품 개발은 물론, 건강한 사회, 나아가 인류의 행복을 추구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한미약품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인류의 보다 나은 삶에 기여하는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한미약품 임직원들이 자선바자회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